

특특뉴스

삼성전자, 구직상담에 메타버스 적용

삼성전자가 산업채용 구직상담에 '메타버스 (Metaverse·3차원 가상세계)' 플랫폼을 적용한다.

삼성전자는 2021년도 하반기 3급(대졸) 신입 채용에서 MZ세대 구직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일대일 직무상담'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구직자들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관심이 있는 사업부의 직무에 대해 일대일로 직무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업부별 직무 소개 영상 시청 등 여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구직자와 소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직자들은 삼성전자 채용 블로그를 통해 메타버스 플랫폼 입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내가 소득상위 12%?” 지원금 역차별 논란

건보료 기준 지급에 자영업자 형평성 제기

피해사례 속출... 11월 12일까지 이의신청

광주 북구에 사는 박씨(36)는 콘서트, 뮤지컬 등 공연과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공연 등과 같은 각종 문화생활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일이 끊겼다. 그와 함께 사는 동생 또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 둘은 모두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고 있었다. 별다른 소득이 없었지만 건보료 환산액은 붙어났고, 결국 붙어난 건보료로 인해 이들은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넘기게 되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코로나19로 1년 넘게 정기적인 수입을 받지 못했

음에도 불구하고 건보료로 인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광주 서구에 거주하는 자동차 영업사원인 오씨(44)는 지난해 인센티브를 예년보다 많이 받아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인 연소득 5,800만원 기준을 넘기게 됐다. 오씨는 “건보료 기준을 충족해 당연히 지원금을 받을 줄 알았는데 알 아보니 연소득이 조금 초과됐다”며 “연봉이 또래 친구들에 비해 많은 편도 아닌데 특수한 경우로 탈락해 아쉽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11조원 규모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예산의 90%를 사용,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심리를 살리고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국민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그러나 서민들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만큼 6월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고소득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1인 또는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를 적용, 약 88%의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준으로 인해 코로나19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저소득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공평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관련 이의신청도 폭주하고 있다. 9일 기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접수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현재 4만 건을 넘어서는 등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의 제기는 주로 건보료 기준과 관련된 조정이 대다수일 것으로 보인다.

건보료를 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삼을 경우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은 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수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직장,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책정 방식이 달라 이를 적용할 경우 자영업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에 따라 회사와 건보료를 나눠 내는 방식이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해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구

조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가입자는 2019년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등이 지역가입자에 포함된다.

이에 정부는 오는 11월 12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고, 가능하다면 이의 제기를 한 이들의 입장을 충분히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지원금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지급 대상이 본인인 6월 30일 기준일 당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온라인)를 통해 하면 된다. 건보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감소 증명하기 위해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오지현 기자

그래픽 경제

경상수지 추이



7월 경상수지 15개월 연속 흑자

지난 7월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15개월째 이어졌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7월 경상수지는 82억1,000만달러(약 9조 4,99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 이후 15개월 연속 흑자일 뿐 아니라 작년 같은 달(70억3,000만달러)과 비교해 흑자 규모가 11억9,000만달러 늘었다.

한은은 연간 800억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는 753억달러였다.

중흥건설, 협력사 공사대금 조기 지급

중흥건설그룹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약 1,000억원 규모의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협력업체들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추석 명절 전에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며 “전국 50여개 공사현장의 협력업체들이 직원들의

임금 및 자재대금을 원활하게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흥건설은 지난 설 명절 전에도 공사대금 900억을 조기 지급했다. 또 지난 4월에는 협력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와 대·중소기업 간 임금지차 해소 차원의 동반성장 활동으로 3년간 100억원 규모를 지원하기로 동반성장위원회와 협약했다. /서미에 기자



광주지방조달청은 9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남지회 소속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광주지방조달청 제공

금호타이어, 추석 맞이 ‘이웃사랑 캠페인’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최근 광주·곡성·평택 공장 인근의 독거노인과 노인 복지관에 제수용품과 식료품을 전달하는 ‘이웃사랑 캠페인’을 실시했다.

9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이웃사랑 캠페인’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명절을 함께 나누자는 취지로 시작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난 2002년부터

매년 명절 때마다 이웃들에게 제수용품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광주·곡성·평택 공장 인근의 독거노인과 소외된 이웃 230명에게 전달될 제수용품과 식료품을 준비했다.

금호타이어가 준비한 물품은 광주 광산구청, 곡성군 입면사무소, 평택시 포승면사무소 등을 통해 각 가정에 전달될 계획이다. /서미에 기자

광주조달청장, 전남 여성경제인 간담회

주요 조달제도 설명·판로 확보 방안 등 논의

광주지방조달청(청장 김공진)은 9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남지회(회장 김영) 소속 여성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여성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는 여성기업의 공공조달

이 자리에서 김영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남지회장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기업에 대한 조달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공진 광주조달청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며 “지역 여성기업이 성공적으로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해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조력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서미에 기자

상무지구 FUNIS

광주 최대규모! 세상에 없던 완벽한 즐거움!

스크린골프와 볼링, Cafe & Lounge 등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365일 즐거움이 쏟아진다!

- 3F_SCREEN GOLF**
플레이블은 광주 최고 수준의 GOLF FROM PARK 시스템 스크린 12실과 부대시설
- 2F_SCREEN GOLF**
플레이블은 광주 최고 수준의 GOLF FROM PARK 시스템 스크린 11실과 부대시설
- 1F_CAFE & LOUNGE**
Fun it, us
프라이빗하게 소규모 모임과 미팅을 즐길 수 있는 색다른 공간
- B1F_BOWLING**
고급스럽고 프라이빗한 24레인 규모의 대형 볼링장

FUNIS

062. 374. 8181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192(치평동) 구. 상무리초컨벤션웨딩홀